

한미정상회담 띄우는 與 “역대급 선물보따리...국격 뽐뽐”

송영길 “美대북정책 속도...판문점선언 비준 협의” “미사일 주권 완전 회복...전략권 회수까지 연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극찬하며 전폭지원을 다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와 경제 등 전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며 “한미관계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전면적인 변화의 계기, 즉 전략적 변곡점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한다”고 호평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5·21 한미정상

회담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국격이 뽐뽐 느껴진 한미정상회담이었다”며 “3박5일의 짧은 일정이었음에도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 성과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상 이상의 엄청난 성과였다”고 가세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북정책 진전·코로나19 백신 협력·미사일 제한 해제 등 정상회담 결과를 조목조목 열거했다.

송 대표는 우선 미국의 성급 대북정책특별대표 깜짝 지명에 대해 “외교

적 방법 중심으로 대북 정책 속도 높이었다는 강한 의지”라고 평가한 뒤 “다시 기회가 싹트고 있다”면서 북미관계 전향적 변화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문제를 정부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면서 지원 의지도 드러냈다.

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 제한 해제에 대해선 “42년 만에 우리나라의 미사일 주권을 완전히 회복한 것”이라며 “앞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략권) 회수와도 연결돼 우리 군사주권을 확립하는 계기로 연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군 55만명에 대해 백신 지원을 합의한 것은 한미동맹

의 굳건한 우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미 군사동맹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도 굳건한 동맹을 지켜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 회담은 한미동맹을 두 단계 이상 진화시켰다”며 “한미 양국은 안보 넘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물론 향후 세계 경제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도해나갈 가장 긴밀하고 포괄적인 선진 경제동맹의 수준으로까지 확대해나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원수의 외교적 성과에 뒤지지 않도록 국회도 민생 지원에 진력해야 한다”며 “국회는 지난주 본회의를 열어 98건의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했는데 남은 5월 국회 일정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허비하지 말고 남은 법안 심의에 더욱 협조를 주문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野전당대회 ‘조직 vs 공중전’... ‘술대물’ 수싸움 당락 좌우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 경쟁이 막이 오른 가운데 전당대회 후보등록 시점부터 선출까지 선거운동 기간은 20여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이번 전당대회는 조직 대 공중전 싸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상대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각 지역별 당협을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 결국 중진들은 ‘조직’을, 청년·조선의원들은 ‘공중전’에 방점을 둔 캠페인에 전력을 쏟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6·11 전당대회의 주목할만한 점은 국민의힘이 당원 투표 70%·일반 여론조사 30%로 당대표를 선출하는 현행 당헌당규를 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 안팎에선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들어 변경선의 일반 여론조사 비중을 크게 높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당은 예전과 같은 전대룰로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했다.

총 9명의 후보자가 당권 도전에

나선 가운데 대선전에서 국민의힘이 합동 토론회 한 번 없이 컷오프를 실시한다는 건 본선 진출자를 인지도만으로 가려내겠다는 당 지도부의 의중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선수가 높고 전국적으로 지지기반을 다져 당권 경쟁에서 유리할 것으로 여겨졌던 조경태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불리한 경선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당 안팎에선 컷오프 룰에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조 의원은 선관위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지역 내 조직과 인지도는 갖추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대중인지도가 낮은 홍문표 의원이나 윤영석 의원 등도 전대룰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마찬가지다. 선수가 높아 중진이 속하는 권영세 의원(4선)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조해진 의원(3선)이 당대표에서 최고위원으로 체급을 낮춘 이유도 이 같은 사정과 무관치 않다는 말이 나온다. 인지도가 낮은 약소 후보의 경우 공개토론회 등에

서 존재감을 드러내 반등을 노려야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후보가 워낙 많아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이 같은 어려운 사정을 당에서 감안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당헌당규를 적용한다면 본선 진출자는 원내에서 주호영, 김용원, 원외에서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 안팎에서 비중있게 거론된다. 남은 한 자리를 놓고 조경태, 홍문표, 김은혜 의원 등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

보다 배 이상 많기 때문에 당심의 선택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절대 강자가 없는 이번 전당대회에선 본선 후보만 5명에 달하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로 당대표로 선출될 가능성도 있다.

영남권에서 5선을 달성할 만큼 지지기반이 견고한 주호영 의원과 전국적으로 대중 인지도가 높은 나경원 전 의원이 본선에서 경쟁력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신진 세력이 본선에서 단일화에 나설 경우 선거 구도가 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선거전이 중진 대 신진 대결 구도지만, 주 의원과 나 전 의원이 배수진을

본선 5명 후보 중 나경원·주호영 경쟁력 압도적 청년·조선, 전대룰 고려해 단일화로 판 흔들수도

치고 선거에 나서는 만큼 쉽게 물러날 기미가 없어 두 사람이 단일화에 나설 확률은 낮다. 중진그룹에서 주 의원과 나 전 의원 간 단일화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반면 당내 기반이 약한 조선의원들의 경우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경선에 임하기 때문에 만약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김용, 김은혜 의원이 본선에 오를 경우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든 한 사람에게 표를 몰아줄 공산이 크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기자

서동용 의원, 광양만권 이차전지 소재 공급기지 사업 확정 ‘환영’

“광양만권, 대한민국 친환경 미래산업 핵심지역 발돋움 할 것”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구축’ 공모사업에 전남 광양시가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재활용 구축사업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서동용 의원이 산단 대개조 사업의 일환으로 전남 및 광양만 권역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했던 사업이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수명을 다한 폐(廢)배터리가 미래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폐배터리를 그대로 폐기할 때 환경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버려진 배터리를 재활용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폐배터리 관련 친환경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애초 해당 사업이 정부 원안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막판까지 예산 당국과 끈질긴 협상과 설득 끝에 해당 사업예산이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다.

정부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233억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방식의 첨단 재활용 공정 설비를 도입하고 이차



전지 재활용과 관련한 공정기술을 개발·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광양만권은 이차전지 원료가 공, 소재·부품 기업이 집적해 있어 이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사업이 완료되면 재활용 기술혁신 및 소재·부품 자립화를 위한 이차전지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국내 이차전지 사업의 핵심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동용 의원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이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매우 반갑게 생각한다.”며 “향후 광양만권이 전남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친환경 미래산업 핵심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